



‘한반도’·‘괴물’ 등 토종 블록버스터 잇단 개봉



한반도

괴물

“올 여름 할리우드는 없다”

▲한반도=‘실미도’와 ‘공공의 적’ 시리즈를 만들어 흥행신화를 낳은 강우석 감독의 작품답게 개봉 전 시사회부터 관심을 집중시켜왔다. 13일 개봉 하루 전인 12일에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국회 시사회를 열어 큰 반향을 일기도 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일본의 ‘선제공격론’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한일 외교 및 군사분쟁을 담고 있는 영화의 내용에 대해 국회의원 상당수가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다.

정치권의 호의적인 반응과는 달리 평단과 일반관객들 사이에서는 ‘한반도’를 좋고 대 평생이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 일부 평단에서는 이 영화가 지난친 감상적 민족주의에 기대되는 범작이라 혹평하고 있으나 일반관객들 사이에서는 우리 민족 내부의 여러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수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영화를 두고 평단과 관객들이 이렇게 정면으로 엇갈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올 여름 유난히 강세를 띠고 있는 가운데 대형 한국영화 두 편이 이 같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영화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편의 영화는 강우석 감독의 ‘한반도’와 봄준호 감독의 ‘괴물’. ‘한반도’는 지난 13일 개봉돼 관객들이 시작했으며 ‘괴물’은 27일 개봉된다.

‘메이드 인 코리아’ 자부심 당찬 도전

침체 한국영화시장 반전 회심의 카드

리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도 보기 드문 일이다.

평단과 관객들의 대립각은 이 영화에 대한 흥행 전망도 극단적으로 엇갈리게 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미 ‘실미도’ 등을 통해 1천200만 관객을 모은 전작들의 ‘신화’가 이번 ‘한반도’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시 1천만 관객의 신화를 꿈꾸기

보다는 적정 수준의 관객을 고려함으로써 기대치를 다소 낮추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

▲괴물=봄준호 감독의 신작 ‘괴물’ 역시 최근 언론 시사를 통해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하지만 이미 이 영화는 지난 5월 열린 제59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얻으며 2006년 하반기 한국영화 최고의 화제작으로 떠오른 상태다.

‘괴물’은 한강변에 나타난 괴수에게 팔을 빼앗긴 남자 박강우(송강호)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잃어버린 팔을 찾아 한강 구석구석을 찾아 해매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주어내는 종중적이고 디의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낸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듯한 모습.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봉 감독의 전작인 ‘살인의 추억’의 출연진이 대거 나오는 것 또한 이번 영화의 특징. 변희봉, 송강호, 박해일까지 주연배우 대부분이 그대로 참여했다.

봉 감독의 이력은 독특하다. 강진 출신으로 고등학교까

에 딸을 빼앗긴 남자 박강우(송강호)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잃어버린 팔을 찾아 한강 구석구석을 찾아 해매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주어내는 종중적이고 디의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낸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듯한 모습.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듯한 모습.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 꼽힐 들텐데요. 할리우드 영화 ‘에일리언’이 연상된다.

한국영화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었던 괴수영화인 만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건 ‘괴물’의 실제 모습.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뉴질랜드 웨타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은 아카마이 변형된 물고기로 다소